

日帝下 間島 文學概觀

權 哲*

I.

光復前 間島¹⁾라고 불리웠던 지금의 延邊朝鮮族自治州(簡稱 延邊)는 中國에서의 朝鮮民族의 主要集居區이고 文化中心이며 또한 지난날 우리 겨레의 수난과 투쟁의 歷史를 聯想케하는 유서깊은 고장이다.

목하 延邊에는 80만에 달하는 우리 겨레들이 기타 兄弟民族들과 의종계 지내면서 자기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백여년 전만하여도 간도는 아주 황막하였다. 19세기 중엽부터 대량적으로 이곳에 이주하여온 우리 겨레들은 이 고장을 개척하고 건설하여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희망을 품고 부딪치는 모든 난관을 헤가르며 억척스레 삶을 영위해나갔다.

이 백여년래 우리 겨레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은 실로 수난으로 충만되었었다. 이 긴긴세월 우리 겨레들은 시종 봉건통치계급의 압박과 수탈을 당하였으며 또한 무단적으로 중국을 침입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기반밑에서 36년간이나 민족의 자주권과 문화를 박탈당하고 모진 곤경속에서 굴욕적인 생활을 하여왔다.

그러나 그같은 모진 탄압하에서도 우리 겨레들은 굴하지 않고 일제와 그에 아부한 반동통치와 끈질기게 싸워 끝끝내 승리를 취득하였다. 이 시기에 민족적 사명감에 불타던 선구자들과 문필가들은 시종 민족의 일을 간직하고 본 민족의 문화전통과 문학유산을 계승한 토대위에서 우리 겨레의 생활과 미학적 이상을 절실하게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전반 조선문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존한 역사적 기재들에 쫓으면 근 100년래에 거둔 문학성과는 적지 않았으나 장기간 모진 세파를 겪는 가운데서 많은 작품이 인침되다보니 지금에 와서 지난시기 간도에서의 조선민족문학 발전의 歷程을 밝히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본문에서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집된 극히 제한된 文學資料와 이미 取得한 研究成果들에 기초하여 지난날 간도의 朝鮮民族文學에 대한 大體的 考察을 시도하였다.

아래에 不同한 歷史時期에 쫓아 3부분으로 나누어 광복전 간도문학의 실상태를 간술하려한다.

* 中國 延邊大學 教授

1) 여기서는 광복전에 북간도라고 불리운 지금의 延邊을 가리킴.

II.

19세기 중엽으로부터 1920년에 이르는 근대시기에 간도에 移住한 朝鮮民族은 그 같이 험난했던 정치환경하에서도 자기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에 있는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이주민 중의 절대부분이 極貧한 농민들이었고 게다가 자기의 知識人과 出版機關을 가지지 못하는 등 조건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문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후 20세기에 진입하여 간도에서는 조선의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영향하에서 발전된 文化·教育·出版事業²⁾과 더불어 문학창작활동이 전개되어 적지 않은 작품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과 文學資料들은 封建統治와 日帝의 문화말살정책의 屠戮을 당하다보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작품은 20세기 이후 民族文化啓蒙運動과 反日鬪爭過程에서 창작된 얼마간의 唱歌와 時調, 漢文詩 그리고 文藝性을 가진 檄文 등이 있을 뿐이다.

그중 唱歌는 이 歷史時期에 대중 속에서 가장 널리 창작보급된 近代的 詩歌形態의 하나였다. 대중성을 띤 이 唱歌들은 民族의 念願과 時代的 思潮를 여러모로 反映하면서 참신하고도 다양한 主題를 표현하였다.

당시에 창작된 唱歌에서 다룬 主題를 전일적으로 考察할 때 그중에는 우선 中世紀的 朦昧와 어둠 속에서 한시 급히 깨어나 科學知識을 習得하고 文明開化의 潮流에 따를 것을 권유한 작품들이 매우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學徒歌》, 《勸學歌》, 《修學歌》, 《修業歌》와 더불어 各地 私立學校의 校歌들이 그 代表的인 例로 된다. 그리고 이런 文明開化의 主題에 바쳐진 唱歌에는 또 女性解放, 男女平等, 婚姻自由 등 참신한 내용을 담은 《同心歌》, 《自由歌》, 《女子는 根本》, 《사랑의 祝福》 등이 있다.

다음, 이 시기 唱歌에서는 復讐雪恥하고 悲運에 처한 民族을 견져내며 自主獨立을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 노래들이 꽤 많은데 이런 노래들은 당시 참가군에서 자못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復讐雪恥의 宿願과 決意를 노래한 《3월가》, 《독립운동가》, 《復讐雪恥歌》 그리고 바야흐로 日帝하의 血戰을 앞두고 操練에 몰두하는 청년학도들의 용맹한 기개를 격조높이 구가한 《動員歌》, 《決鬪歌》, 《血誠隊歌》, 그리고 《勇進歌》를 위시한 여러가지 《독립군가》는 그 代表的인 作品들이다. 이런 唱歌는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아주 심각한 影響력을 산생하였다.

이밖에 망향의 恨을 달래며 부른 《망향가》(부동한 내용을 담은 여러가지 창가가 있음), 《渡江歌》, 《나비가》, 《思鄉曲》 등이 있는데 이런 노래들은 당시 우리겨레의 鄉愁의 情을 절실하게 담았기에 광범한 대중의 共鳴을 자아냈다.

위에서 보여주시시피 근대시기 唱歌는 그때의 時代的 潮流에 바짝 따르면서 인민대중의 美學的 志向에 쫓아 어디까지나 現實生活과 反日民族獨立運動중에서 提起되는 焦眉의 문제들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反日文化啓蒙運動에 有力하게 이바지하였다. 그 예술형식면에서도 그 시기의 새로운 시대적 발전과 人民大衆의 審美的 情緒에 맞는 참신한 形式과 表現方法들을 使用함으로써 우리 民族詩歌의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이 歷史時期에 時調와 漢文詩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고, 현대 自由詩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작품은 많지 못하다. 이런 시편들은 당시 憂國志士거나 進歩의인 詩人들에 의해 지어진 것은 사실이나 가석하게도 지금 그 作者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이 시기 時調, 漢文詩, 自由詩創作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지만 現存한 作品들을 통하여 당시 이런 詩文學의 일각을 더듬어보려 한다.

지금까지 수집된 이때의 時調로는 《柳花節》, 《青年아》, 《團結力》, 《丈夫詞》, 《匣中劍》, 《碧空月》, 《志士吟》 등이 있는데 이런 時調들은 바로 近代文明開化에 대한 지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민족의 운명에 대한 詩人들의 깊은 心慮와 불같은 사랑을 남김없이 토로하고 있다. 그중 時調 《柳花節》에서는 당시 세차게 불어온 文明開化思潮를 《봄소식》에 비기면서 하루 속히 몽매에서 깨어나 時代의 潮流에 따를 것을 간곡하게 염원하고 있다. 이런 時調의 밑바닥에는 詩人들의 憂患意識이 여울치고 있다. 時調 《團結力》에서는 民族의 悲運을 초래하게 된 歷史의 教訓을 심각히 검토, 반성하는 民族의 見地로부터 출발하여 民族의 大團合의 深遠한 意義를 生動하게 집약하고 있다. 그리고 3.1운동 전야에 창작된 작품으로 推定되는 《匣中劍》, 《志士吟》, 《丈夫詞》……에서는 정중하고도 심오한 서정세계를 통하여 民族의 정기를 한몸에 지닌 憂國志士들의 충정과 비장한 결의를 토로하고 있다.

이 시기에 漢文詩도 적지 않게 읊어졌다. 反日鬪士들이었던 李相龍, 金佐鎭, 李禎, 그리고 金鼎奎 등이 읊조린 《朔風利於劍》(李相龍), 《向祖國進軍》(金佐鎭), 《陣中吟》(李禎) 등이 그 좋은 예로 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때에 창작된 小說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당시 영향력을 크게 산생하였던 《謝學趣旨書》, 그리고 金鼎奎, 池龍澤의 《女華官書》등 산문이 전해지고 있다.

1910년 이후 시기에 간도에는 조선의 新派劇이 영향하에서 近代의인 연극이 出現되기 시작하였다. 전하는 바에 依하면 당시 渡日하여 留學하고 온 文藝青年들이 당시 青年學生들과 함께 新派劇을 본따 자체로 극을 꾸며 공연하였다. 일찍 社會活動家로 활약하다가 1949년부터 延邊大學歷史學科에서 교편을 잡았던 池喜謙 教授(1902~1981)는 자기의 회고담에서 1914년을 전후하여 龍井, 延吉, 그리고 기타 城鎮과 농촌에서 民權自由, 自由婚姻, 迷信打破 등을 선양한 新派劇 《새가정》, 《미신타파》 등을 직접 보았다고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공연된 연극대본이거나 연극출현상황을 밝힌 사료들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찾지 못하였기에 당시의 국문학 정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없는 것이 무척 유감

2) 1916년말에와서 간도에는 여러가지 類型의 學校 158個所에 學生 3,879명이 있었다. (《조선족략사》 연변인민출판사 1987년 제 1 판 280페이지 참조)

그리고 역사가제에 의하면 이시기 간도에서 出刊된 신문잡지는 《月報》(1909), 《간도시보》(1910), 《청년》(1914), 《大震》(1914), 《民報》(1915), 《조선독립신문》(1919), 《一民報》(1919), 《애국신문》(1919), 《韓國時報》(1920)등 10여종이 된다.

이 시기에 간도, 상해등지에서 창가집이 나왔음.

스럽다.

이 시기의 문학은 당시 歷史的 條件과 작자들의 수준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사상주제의 표면화, 예술형식의 미성숙 등 이러저러한 결함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가 具現하고 있는 反帝 封建의 性格과 취득한 成果로하여 당시 민중을 각성시키는 데서나 새로운 문학양식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III.

1920년으로부터 1931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우리 겨레들이 조선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의 영향하에서 反帝 反封建 鬪爭을 더욱 深入 展開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문학은 先行 時期와는 달리 反帝 封建의 旗幟를 더욱 철저히 내들고 民族 獨立의 實現과 새로운 社會에 대한 理想을 구가하였다. 그리고 문학장르를 볼 때 산문, 소설은 성행되지 못하였으나 시가 창작은 보다 활약스러웠다. 그 중에서도 혁명가요가 많이 창작되며 민중속에 널리 일반화됨으로써 크나큰 영향력을 산생하였다.

이제 당시 창작된 혁명가요군에서 다룬 주제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낡은 사회제도가 빚어낸 불합리한 사회현실과의 모순을 첨예하게 폭로하고 규탄한 혁명가요들이 가장 많다. 이런 주제에 바쳐진 혁명가요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는 《불평등가》, 《현대사회모순가》³⁾, 《빈농민자탄가》, 《총동원가》, 《결사전가》, 《동홍중학교교가》...가 있다. 일찍 20년대 후반기에 널리 보급된 《현대 사회모순가》와 1930년 《붉은 5월항쟁》시에 널리 불리운 《총동원가》는 심원한 영향력을 산생하였다. 이 가요들은 오늘날까지도 광범한 민중 속에서 애창되고 있다.

당시의 혁명가요중에는 반일민족투쟁의 앞장에 서서 몸바쳐 싸운 반일민족투사들의 숭고한 품성과 억센 투지와 빛나는 공훈을 정열적으로 구가한 것들이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혁명자의 노래》, 《혁명가》 등과 더불어 여러 민족문화단체거나 독립군에 널리 보급된 《추도가》, 《想思曲》, 《생離別》과 같은 많은 노래들이 있다.

이 20년대에는 또 소련 社會主義 革命의 승리를 찬양한 창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붉은 봄 돌아왔다》, 《10월 혁명가》, 《소련옹호가》와 같은 일정한 대표성을 가진 노래들이 있다.

이 밖에 《소년아동가》, 《어린이의 노래》, 《너자해방가》, 《離婚歌》 등 문화계몽의 내용을 담은 노래와 떠나는 故國과 情든 故鄉을 사무치게 그린 《思鄉曲》, 《어머니 생각》, 《離別歌》 등과 같은 감명깊은 가요들이 애창되었다.

3) 《현대사회모순가》는 金中健先生이 지었다고 전해짐. 《笑來集》 431페이지 노래《사회적 모순》참조.

20년대의 혁명가요는 先行時期 唱歌에 대하여 그 내용면에서 일제의 침략적 죄행과 봉건통치제도 하의 암흑한 현실과 朝鮮民族의 念願을 새로운 觀點에서 보다 깊이있게 반영하였으며 또한 그 정서면에서도 낭만주의적 격정으로 충만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 혁명가요에서 다룬 主題는 물론 그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기하였다.

이 시기에 自由詩와 漢文詩創作도 아주 활약적이었다. 시인들은 당시 간행된 《民聲報》⁴⁾ 등에 생신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形式의 詩篇들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작품들을 전면적으로 수집하지 못하였기에 이때의 창작정황을 총괄적으로 고찰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近來 발견된 불과 30일분도 안되는 《民聲報》에 게재된 시편과 漢文詩, 그리고 수집된 일부 詩作品을 통하여 당시 詩歌文學의 일각을 살펴보려한다. 그중 훌륭한 詩篇으로 評言을 받았던 《朝鮮心》(白岳山人), 《燕歌解》(作者未詳), 《님찾는 마음》(李日村人) 등에서는 멀리 他鄉에서 한없이 故國을 그리는 鄉愁의 情과 民族의 自主獨立에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염원을 감명깊게 토로하고 있다.

서정시 《님을 찾으며》(權收), 《언니를 그리우며》(C.S.C), 時調 《流浪人》(P.A.S) 등에서는 망국노로 전락되어 겪는 가지가지 눈물겨운 정경과 절통의 정을 읽게 된다. 이밖에도 이 고장에서 잔혹한 수탈로하여 받는 수난의 이모저모를 사실주의적으로 폭로한 《여름의 농촌》(金權榮), 《端午節》(初來生)과 일제의 야만적 탄압을 규탄한 《백색테러》(南文龍) 등이 있다.

이 시기 漢文詩창작에도 일정한 성과들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1921년 龍井에서 무어진 漢文詩人들의 동인단체 辛酉詩社의 詩友들에 의하여 적지 않은 漢文詩가 창작되었다. 시 《暮春》(李自園), 《暢兒山》(作者未詳)…이 그 例로된다. 辛酉詩社 詩友들의 詩는 다분히 超現實的인 경향을 보이면서도 또한 그들의 시행 속에는 日帝를 저주하고 民族의 불우를 통탄하는 정서가 흐르고 있다.

이 20년대에 檄文, 수필 등도 적지않게 나왔다. 이런 사정은 당시의 정치형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발표된 문예성을 띤 檄文 《곡물가暴落에 살길없는 전투적 농민들에게 檄함》, 산문 《어머님을 拜別하옵고》(불효자), 《校門을 나서면서》(朴正武)…를 例로 들 수 있다.

당시 小說창작은 널리 진행되지 못하였다. 당시 단편소설이 좀 창작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그 소설 작품을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는 간도에서의 현대소설의 태동기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20년대 초엽에 우리의 저명한 작가 崔曙海는 다년간 간도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그가 후에 내놓은, 간도에 와 수난을 겪는 겨레의 처참함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반동통치제도를 타매, 단죄한 단편소설 《탈출기》, 《饑饉와 殺戮》… 이 그 實證으로 된다.

1920년대에 들어선 후, 더욱이는 그 후반기에 이르러 연극활동이 널리 전개되었다. 이때까지만도 직업적으로 연극(희곡) 창작에 종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다가 1928년을 선후하여 龍正, 圖們, 琿春 등 지방에는 반직업적인 《演劇號》(龍井), 《藝友社》(龍井), 《文友會》(琿春)가 나옴에

4) 《民聲報》 1927년 12월에 龍井서 창간, 1931년초에 정간됨. 漢文版과 朝鮮文版을 함께 냄.

따라 화극, 가극, 대화극 啞劇등이 출현하였었다. 지금 그 당시의 脚本(또는 연출대본)은 찾을 길이 없으나 일부 그 극들의 주제내용이거나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다. 당시 출연된 극작품으로는 《연극호》에서 공연한 화극 《怪青年》, 《學友之情》, 藝友社에서 창작한 啞劇 《이렇다!》, 文友會에서 공연한 《과랑새》 그리고 早期革命團體들에서 창작·공연한 《경숙의 마지막》, 《어디로 갈것인가》, 《야학으로 가는 길》, 《무당과 의원》등이 있다. 그중 화극 《경숙의 마지막》에서는 빈한한 가정에서 맏딸로 태어난 경숙이의 가공한 운명과 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 악질지주의 잔혹한 수탈행위와 추악한 본성을 폭로단죄함과 동시에 당시 빈농민들의 자발성적인 반항을 보여주고 있다. 화극 《야학으로 가는 길》은 文盲退治의 주제를 아주 해학적인 수법으로 재치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작품은 그뒤 항일시기, 나아가 광복후에 까지도 공연되어 관중의 찬사를 받았다.

IV.

1931년 《9.18사변》이후로부터 1945년 8월에 이르는 14년이란 오랜시기에 간도에 거주한 조선민족은 전민적 항일통일전선에 가담하여 가열처절한 무장투쟁을 벌여 끝내 일제를 몰아내고 항전의 승리를 취득하였다.

당시 日帝가 무단적으로 침략하여 들어오자 각 민족은 중국공산당에서 제출한 《일체는 항일을 위하여!》란 구호 아래 단합하여 투쟁에 일어섰다. 이런 거창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의 문학은 抗日武裝鬪爭의 새로운 時代的要求와 민중의 미학적요구를 반영하면서 그 투쟁과정에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시기의 문학활동과 창작은 정치적 환경의 부동으로 하여 같지않은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제 아래에 당시의 敵占領區와 抗日游出區에서 진행된 문학활동과 창작정황을 나누어 서술하려한다.

이때 敵占領區의 政治環境은 始終 險惡하였다. 더욱이는 1940년에 들어선후 멸망의 운명을 만구할 수 없게된 일제는 단말마적으로 날뛰면서 팻쇼통치를 강행하였다. 그들은 우리작가들을 자기가 조작한 소위 대동아공영권實現에 利用하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와같은 역경속에서도 우리의 진보적 작가들은 세차게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고무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학창작 활동을 계속 벌어나갔다. 그때 간도에는 강경애, 안수길, 김창걸, 황건, 현경준, 신서야, 한찬숙, 김국진 등 소설가와 李鶴城(李旭), 尹海榮, 李東柱, 咸亨洙, 金朝奎, 金達鎮, 千青松... 등 시인, 무려 수십명으로 헤아리는 작가들이 문학창작에 뛰어들었다.

30년대에 龍井에서 활동하던 진보적 작가들은 李周福, 安壽吉 등의 발기하에 1933년 11월에 文學同人團體인 《北鄉會》를 뒀고 文學創作을 추진하였으며 文學後陣을 위하여도 많은 일들을 하였다. 이 북향회의 문학활동을 적극 돕고 두던하여 나섰거나 그 집필진에 가담한 작가들 가운데는 그때 명망이 있었던 姜敬愛, 朴花城, 李學仁, 金國鎮...이 있다.

이때 間島의 作家들은 龍井에서 간행한 《北郷》지(1935년)와 延吉에서 출간된 《카톨릭소년》(1936년)과 더불어 조선에서 발행된 여러 신문과 잡지, 그리고 중국에서 꾸린 《간도일보》⁵⁾ 《만몽일보》⁶⁾, 《滿鮮日報》⁷⁾ 등의 지면을 이용하여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작가 자신들이 나서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소설집 《씩트는 大地》(1941년), 詩集 《滿洲詩人集》(1942년), 《在滿朝鮮詩人集》(1943년), 종합집 《滿洲朝鮮文藝選》(1942년) 등을 펴냈다. 또한 이 시기에 자기 작품집을 낸 작가로는 강경애와 안수길이 있다.

敵占領區에서의 극문학은 그때의 험악하였던 정치환경으로 말미암아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때 발표된 희곡으로는 1936년 《北郷》에 連載된 장막극《破天堂》(李周福)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시기 敵占領區에서 우리의 詩人和 作家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중 대표성을 띤 作家로는 詩人에 李鶴城(李旭), 尹海榮, 尹東柱, 咸享洙...와 小說家에 姜敬愛, 安壽吉, 金昌傑...을 천거할 수 있다.

詩人 李鶴城(1907~1984)은 1924년에 처녀작 《생명의 禮物》(서정시)을 내놓은 때로부터 시창작에 나섰다. 그의 해방전 시창작에서의 전성기는 1940년대 좌우시기로 간주하게 된다. 이때 詩人은 여러 잡지와 신문들에 적지않은 시를 발표하였으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 작품으로는 서정시 《躑躅花》(1935년), 《별》(1942), 《北斗星》(1945년) 등 20여편이 있을 뿐이다. 이는 시인의 해방전 작품의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된다. 그의 해방전 시작품들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재와 주제를 다루면서, 강렬한 민족의식으로써 애써 겨레의 고결한 품성을 찬미하며 미래의 지향을 낭만을 구가하였다. 그의 시는 호방하고 낭만적이며 또한 많은 상징적 수법을 애용하면서 잠재의식에 의한 형상적 표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인 尹海榮(1909~1948?)은 1930년대 초부터 당시의 신문, 잡지 등에 시작품을 적지 않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거개 散失되다보니 지금 찾을 수 있는 이 시기의 것으로는 가사 《선구자》, 《룡정의 노래》, 서정시 《해란강》, 《오랑캐고개》, 《四季》, 《渤海占址》, 《목단강의 물결》 등 몇 수가 있다.⁸⁾ 그의 가사 《선구자》(조두남 작곡)는 1930년대 초기에 창작되었으나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후에 남한을 통해 아주 널리 불려졌다. 이에서 시인은 흘러간 인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외래의 강포에 대항하고 민족해방을 위하여 싸운 선구자들을 절절하게 추모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건져낼 영웅들의 출현을 그같이 애타게 고대하였다. 이 노래에는 겨레의 넋이 세차게 사뭇치고 있으며 비장한 시적 정서가 충만되고 있다.

詩人 尹東柱(1917~1945)의 창작생애는 그가 中學時節이었던 1934에 첫 서정시 《삶과 죽음》을 쓴 때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창작시간은 짧아도 그 사이에 적지않은 시편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5) 《간도일보》: 1923년에 창간하여 1937년말까지 龍井에서 발행.

6) 《滿蒙日報》: 1933년 8월부터 1937년말까지 長春에서 발행.

7) 《滿鮮日報》: 1937년말에 間島日報와 滿蒙日報를 합쳐서 滿鮮日報라 이름달고 1945년 8월까지 간행.

8) 광복후에도 적지 않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것을 합하면 20여수가 된다.

감스럽게도 그의 많은 시작품은 그가 옥고를 치르는 때에 散佚되었다. 지금 볼 수 있는 시작품은 그의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110여편이 있다. 시인 윤동주는 항일투쟁시기 말기 이지러지는 민족의 얼과 존엄을 수호하고 되찾기 위하여 민족시인으로서의 빛나는 사명을 수호함으로써 우리시단에 남다른 기여를 하였다.

시인 威亨洙(1916~1946)도 당시 시단에서 성가를 올린 시인이다. 그가 시창작에 들어서기는 192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정시 《마음》이 당선된 때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항일시기에 그는 적지 않은 시편을 내놓았으며 몇편의 詩論도 발표하였다. 서정시 《나의 神은》, 《화석의 고개》, 《해바라기의 碑銘》 등은 그의 力作들이다. 이런 시편들에서 시인은 겨레의 자존의 意志와 더불어 새로운 時代에 대한 理想主義를 정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의 대부분 시편들에서는 왕왕 시적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고 분방하게 감정을 쏟아놓고 있다.

이 시기 소설창작에서 강경애(1906~1944)⁹⁾는 그가 취득한 성과로 하여 당시 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1929년 겨울에 룡정에 와 임시교원을 지내면서 2년간 체류해있다가 1931년에 귀국하였다. 그 이듬해에 작가는 다시 용정에 와서 창작생활을 계속하였다. 1936년부터 고질병으로 신고하다가 1939년에 이르러서는 영영 붓을 놓고 고향에 가 요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여 작가가 본격적으로 창작에 힘쓰기는 모두해 7~8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짧은 기간에 장편소설 《인간문제》, 《어머니와 딸》, 중편소설 《소금》 등과 단편소설 《채진》, 《축구전》 등 10여편을 발표하였다. 장편소설 《인간문제》는 그의 대표작이다. 작중에서는 일제통치와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뒤엎고 새사회를 전취하려면 어느 계층에 의거하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등의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예술적 해답을 주려고 하였다. 그의 소설은 구성이 치밀하고 언어표현은 섬세하고도 정서적이다. 작품에서도 작가의 인식상의 제한성을 피치못하고 있으나 이 작품은 해방전 진보적 소설문학의 성과작의 하나로 되기에 손색이 없다.

작가 安壽吉(1911~1977)은 1935년 《조선문단》에 단편소설 《적십자병원장》이 입선되면서 소설창작에 나섰다. 작가는 광복전에 그 대부분 시간을 龍井에서 지냈다. 그리고 1935에는 李周福과 함께 《北郷》을 편집하였다. 그후 작가는 신문기자로 바빠 보내면서도 자선집 《北原》을 펴내고 장편소설 《北郷譜》를 발표하였다. 단편소설 《벼》, 《새벽》, 《장》...은 그의 역작이다. 그의 소설창작에서 거둔 주요한 성과는 곧. 중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의 수난사를 歷史的 傑作속에서 사실주의적으로 폭넓고 생동하게 묘사한 데에 있다. 그러나 그의 인식의 제한성 등으로하여 일제와 滿洲圈의 實質을 看破하지 못한데서 그들의 정책을 수용하였으며 지어 미화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마땅한 비판이 있어야겠다.

작가 金昌傑(1911~)은 6살 때에 부모를 따라 간도 明東에 이주해 온 후 줄곧 이 고장에서 지낸 郷土作家이다. 그는 1936년에 처녀작 《무빈골전설》(단편소설)을 쓴 때로부터 자기의 창작생활을 벌이기

9) 1943년에 별세하였다는 說도 있음.

시작하였다. 작가는 이 때로부터 1943년 붓을 쥐기까지의 8년 사이에 단편소설 《暗夜》를 비롯하여 《落第》, 《개아들》, 《밀수》 등 20여편을 썼으며 기타 장르의 작품도 발표하였다. 그의 단편소설은 당시 현실에 대한 자작의 진실한 감수에 토대하여 20세기초엽으로부터 30년대에 이르는 사이의 겨레의 생활과 운명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함과 아울러 새날을 지향하는 열망을 깊이있게 반영하였다. 작가의 단편소설계보에는 勞動人民들의 비참한 생활을 전시함과 동시에 그들의 민족정신과 저항의 의지를 심각히 파헤친 작품들이 풍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 항일유격구에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배합하여 군민들 속에서 항일가요의 가창과 연극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예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이런 가운데서 항일가요, 시와 문예성을 띤 정론 그리고 연극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때 항일가요는 전문적인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니라 가열처절한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손에 무장을 들고 나선 투사들에 의해, 창작되고 다듬어 졌다. 이런 항일가요는 선행한 가사형태의 詩歌와 唱歌 民謠의 傳統과 민족악곡의 곡조를 계승, 이용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이 창조한 것으로서 우리의 詩歌發展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철저한 民族解放의 思想을 기초로한 이 시기의 抗日歌謠는 변화다난한 당시 현실에 자기의 焦點을 맞추고 各異한 視點과 角度에서 時代精神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따라서 이때에 창작된 抗日歌謠는 비록 공동한 革命的 情緒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題材와 主題는 자못 多樣化하고도 심각하였다.

우선 이때의 항일가요에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일제의 무단적 죄행을 폭로단죄하고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통탄하며 민족해방의 의지를 구가한 가요들이다. 그중에는 《抗日戰歌》, 《9.18사변가》, 《人民의 處地》, 《民族解放歌》...와 같은 대표적 작품들이 있다.

다음 항일무장투쟁에는 전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 결성의 긴박성과 그 의의를 선양한 노래들이 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항일가요 《통일전선가》, 《총동원가》, 《반일병사가》, 《파쟁반대가》, 《반일가》는 다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구가한 노래들로서 당시 민중을 항쟁으로 동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다음, 이때 널리 불리운 가요중에는 또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항일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고결한 품성을 격조높이 찬미한 노래들이 異彩를 띠고 있다. 이런 노래들에서는 일제침략자를 무찌르는 성스러운 싸움터에서 포연탄우를 무릎쓰고 용감히 앞으로 전진하는 항일병사들, 민족해방의 투쟁과 승리의 낭만속에서 삶의 진가를 찾는 서정적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화하였다. 항일가요 《혁명조의 노래》, 《끓는 피는 더 끓어》, 《연길감옥가》, 《추도가》 등이 그 대표적 작품들이다.

그리고 당시 널리 불려진 항일가요 중에는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국제주의를 구가한, 레하면 《메데가》, 《로동자의 노래》와 같은 것이 적지 않다. 이밖에 항일군민들의 樂觀的인 정서생활을 다감하게 보여주는 《유회곡》, 《무도곡》이 있으며 고국과 고향의 부모처자를 한없이 그린 《추억의 고향》, 《고아의

노래), 《感秋歌》, 《離別歌》...가 있다.

항일가요는 우리의 시가문학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런 항일가요는 우리 시가창작에서 처음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정서적이고도 진지하게 반영하였으며 총가목을 굳게 잡고 용감하게 싸우는 항일병사들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항일가요는 그 주제내용이 풍부하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과 형식에서도 자기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항일가요에서의 대립된 두개 세계의 갈등과 대조적인 전시, 정론성과 시적 격정의 통일, 서정과 서사적 내용의 유기적 결합, 선명한 민족적 특색 등은 또한 자못 특징적이다. 이때 창작된 항일가요는 여러모로 그 성과를 현시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역사적 원인과 창작자들의 예술상의 수준제한으로 하여 일정한 미흡점들을 동반하고 있다. 어떤 가요들은 정치내용은 있으나 예술성이 결핍하며 어떤 노래는 직설적인 명백한 표현은 많으나 함축성이 미약하며 지어 적지않은 가요는 정치적 내용의 圖解에 그쳐 개념화 도식화에 흐르고 있다. 허나 항일가요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산생된 창조물임을 감안할 때 이때의 항일가요의 의의와 기여를 충분히 긍정하고 평하여야 할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심일발전과 더불어 항일유격구에서는 연극활동이 널리 전개되었다. 이때에 상연된 대부분의 연극은 항일투쟁에 직접 참가하였던 군민들에 의하여 집체적으로 창작하고 출연된 것들이다. 이때 연극창작에 참가한 그들은 적은 등장인물과 간소화된 무대장치로써 명료하고도 직선적인 슈제를 통하여 심각한 내용을 간명하고 통속하게 표현하기에 힘썼다. 이때에 출현된 극형식으로는 화극과 가극외에 대화극, 풍자극, 인형극 등이 있었다. 이런 연극들은 혁명적인 내용과 생신한 형상의 무대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고동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시 출연된 여러 종류의 연극중에서 보다 영향력을 산생하였던 작품들로는 《혈해지창》(까마귀), 《싸우는 밀립》(까마귀), 《4·6제》(작자미상) 등과 《유언을 받들고》, 《복수》, 《경축대회》, 《군과 약》, 《민머느리》(이상 극들은 작자 미상)...가 있다.

연극 《4·6제》는 1931년 가을 간도에서 기세드높이 일어났던 추수쟁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극은 농민과 악질지주간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악랄하게 수탈하는 악질지주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추수쟁의에서 각성한 농민들이 보다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싸우는 밀립》은 5장으로 된 장막극이다. 이 극은 일제와의 투쟁이 백열화되던 1938년 이른 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극에서는 유격대와 일본침략군간의 생사박투를 그 극적 갈등으로 내세우면서 유격대원들의 일편단심, 민족의 해방을 위한 고상한 품성과 낙관주의를 구가하였으며 또한 일제의 침략만행을 폭로단죄하였다.

화극 《血海之唱》은 일본 침략자들이 7·7사변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갖 발동한 때인 1937년 8월(음력)에 창작되고 유격구에서 여러차례 공연되어 당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 극은 30년대 후반기 장백산지대에서 사는 漢族(중국)어머니 宋마마(어머니란 뜻)가 부상당한 조선 항일유격대원 《빠꼭새》를 위기일발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유복자인 아들 王平和 자신의 生命마저 선뜻 바

치는 비장한 사건과 침묵하고도 긴장한 극적 갈등을 통하여 宋마마와 王平, 《빠꼭새》의 형상을 창조하였고 또한 이 영웅적 형상들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본질적 특징을 서사시적 화폭으로 집약하였으며 그 성스런 민족해방투쟁에서 朝漢民族간에 피로써 맺어진 친선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그 《血극문학》에서는 물론 조선민족의 전반 문학발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항일유격구에서 또한 투쟁의 수요로 부터 《反日報》, 《火田民》, 《3.1월간》 등과 같은 10여종의 신문, 잡지가 간행됨에 따라 수필, 통신, 문예성적 격문과 정론 등이 창작되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런 系列의 작품들로는 《반일투사들이 힘있게 싸우자!》, 《강도 왜놈의 통치에 신음하는 소년들에게 檄함》, 《적진에서 보내온 한 정치위원의 편지》¹⁰⁾ 등이 있다. 우리는 이런 제한된 작품이거나 그의 片斷을 통하여 당시 항일유격구에서 창조된 산문작품의 일각을 엿볼 수 있다.

V.

이상으로 천박하나 광복적 간도문학에 대한 대체적 고찰을 마무리지면서 생각되는 필자의 소견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1) 아직까지 광복전 간도문학에 대한 자료수집과 발굴사업이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형편으로하여 이 시기 文學의 實狀態를 보다 충실한 文學史의 事實로써 안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유감스럽다. 이제라도 먼저 자료수집을 촉구하며 그에 따른 연구를 다그쳐야겠다.

2) 중국에서의 조선민족文學의 性格을 옳바르게 究明하려면 本民族文學傳統과 遺産의 계승성, 근·현대조선문학과의 不可分離의 관계, 餘태가 처한 특정한 時代的 環境하에서 구현된 文學의 특성 등 諸般을 그 유기적인 結合속에서 考察하는 데서만이 가능하다.

3) 이미 출판된 朝鮮文學史著述들을 보면 거개는 간도 등지에서 이룩한 文學成果가 除外되고 있는데 잘 수궁되지 않는다. 특정한 역사조건하에서 창조된 간도문학은 그 主題內容과 題材選擇 및 人的 形狀創造 등에서 자기 특색이 있는 동시에 技法水準이 낮은 등 이리저리한 미흡점도 동반하고 있다. 보다 완전한 우리 文學史의 著述을 위하여, 文學史의 事實로써 간도문학을 재조명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인정한다.

여러 教授님들과 學者님들께서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0년 9월 20일 초고

9월 30일 수개

10) 여기서의 세편의 作品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학예술》 104페이지로부터 107페이지에서 인용하였음.